

현민 여러분께

1 월 7 일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및 가나가와현, 1 도 3 현을 대상 구역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어, 정부의 기본 대처 방침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마네현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는 2021 년 2 월 7 일까지 요청합니다.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1. 긴급사태선언 대상 구역인,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및 가나가와현과의 왕래는 삼가하십시오.

또한, 홋카이도 삿포로시·아사히카와시,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효고현,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미야자키현 등과 같이,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외출 자속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과의 왕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왕래를 삼가하십시오.

단, 어쩔 수 없는 업무나 취직 활동, 수험, 장례, 병간호 등의 왕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갈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2.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5 가지 상황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 집단이나 장시간에 걸친 회식, 마스크 없이 대화하기,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자리 이동)」에 주의하고, 계속해서 「3 밀(密)」을 피할 것,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가락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이용)

3.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 각 점포에서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지킬 것, 현민 여러분께도 대책을 지키고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는,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현 내에서도 현 외에서도 삼갈 것.

(2) 시마네현 외부에서 귀성하신 분이 계신 가정은, 귀성객이 돌아간 후, 2 주간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식사를 삼갈 것.

(3) 시마네현 외부로 귀성하셨던 분도, 시마네현으로 돌아온 후, 2 주간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식사를 삼갈 것.

(4)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① 현 외에서도 이용을 삼갈 것

② 현 내에서도 현 외부인과의 이용을 삼갈 것

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돗토리현과 생활(통근, 쇼핑 등)권역에 속하는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지역은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동절기 환기 실시)

4. 동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내 환경 (습도 40% 이상, 온도 등)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환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접촉 확인 애플리케이션 활용)

5. 후생노동성이 제공하고 있는 접촉확인 앱(COCA)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의 접촉 줄이기 방안)

6. 사업소에서는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비방·중상이나 차별 방지)

7. 감염자와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SNS 에서 비방·중상, 소문 등은 엄숙히 삼가고, 현이나 시정촌 등 공적 기관이 발신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인권을 배려하는 냉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마네현은 국가나 다른 도도부현, 기초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를 취하면서 감염 확대를 방지,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 지역 경제의 회복 등을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사오니, 계속해서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